

■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 착용 의무화 첫 주말 풍경

# “착용, 상식이고 예절” vs “현실적 한계”

의무화 대상 55개 업종  
대부분 코로나 방역 철저  
목욕탕 등 일부는 혼선  
“정확한 지침 필요” 지적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 호흡이 불편해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죠”

지정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주말, 제주도 곳곳에선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다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임에도 정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일부 시설에선 다소 혼선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제주 시내 한 실내 체육 시설 이용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운동장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용객들은 각자 거리를 두고 운동하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마스크를 벗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러닝머신을 뛰며 땀을 흘리면서도 마스크는 코까지 정확히 착용했다. 간혹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시설 관계자가 나서기 전 주위 이용객들이 먼저 착용을 당부했다.

김정연(66)씨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아도 쓰는 게 상식이고 예절”이라며 “불편한 건 모두가 마찬가지이니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쓰는 게 생활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시설과 달리 목욕탕에선 지침 홍보가 덜 돼 혼선이 빚어졌다. 이용



13일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은 14일 제주동문시장 모습. 강희만기자

객들은 물론, 업주들도 마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한 목욕탕 탈의실 내에선 ‘물 속과 탕 안을 제외하곤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순녀(72·여)씨는 “탈의실에서 막 씻고 나와 머리도 말리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마스크를 쓰라는 거냐”며 “코로나19가 탈의실에서만 전파되고 물 안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건지, 기준이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더 황당하다는 입장이 다. 목욕탕 업주는 “바뀐 규정을 알

았으면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거나 안내문을 당연히 붙였을텐데, 몰랐다”며 “언제 어디서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확실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발열체크나 명부 작성도 거절하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 앞으로 탈의실에서 마스크까지 쓰라고 하면 손님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아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인근 식당·카페에선 일부 손님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등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이정연(36·여)씨는 “음식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기 보단 자리에 앉

으면 마스크를 벗는다”며 “음식을 먹기 위해 온 곳인데 계속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긴 힘들다”고 했다.

식당 직원은 “음식을 나르거나 계산해주기 바빠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나하나 당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병의원, 요양 시설, 기타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 도내 55개 업종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1차 경고 후 미이행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외인 경우 전통시장 등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으로 적용 중이다. 영유아, 미취학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시産 감귤, 서귀포시産 둔갑 단속

행정시 “주요 도로변 불시 상주해 차량 조사”

서귀포시는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한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해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해 감귤운반차량의 실제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 지역에서 생산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

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수방교차로 주요 도로변에 불시 점검 통해 감귤운반차량 12대를 점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감귤유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지금까지 비상품감귤 유통에 따른 단속결과 108건, 63t 규모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해안서 해양보호생물 사체 잇따라 발견

푸른바다거북·상괘이 등

제주 해안에서 해양보호생물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55분쯤 제주시 한림읍 관포 포구에서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상괘이 사체를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괘이는 길이 153cm에 둘레 88cm, 몸무게 45kg 정도이며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또 지난 13일 오전 10시53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동쪽 해안에서 죽은 지 15일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는 푸른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했다.

이 푸른바다거북은 길이 105cm에 폭 60cm, 몸무게 40kg 정도다.

제주해경은 푸른바다거북의 사체에서도 포획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푸른바다거북과 상괘이는 모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 보호 야생 동물에 대해선 채집과 가해 도살, 포획이 금지됐다”며 “이들 동물을 발견하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 제주바다 지키던 경비함정 갈라파고스로...

제주해상을 지키다 건조된 지 30년이 지나 퇴역한 경비함이 전례 환경을 자랑하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해역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 >> 사진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퇴역 경비함 302함, 303함 2척이 지난 13일 마산항을 떠나 에콰도르로 출발했다. 퇴역 함정 2척은 대형 수송선에 실려 에콰도르 과이킬항에 오는 12월 도착한다.

퇴역 함정 이송에 드는 운반 비용은 모두 에콰도르가 부담한다.

퇴역한 경비함정은 각각 1990년과 1991년 건조돼 지난해 12월까지 불발조업 선박 나포 357척, 215척, 해난구조 203척, 179척 등의 실적을



올리머 제주해역을 지켜왔다.

퇴역 함정 2척은 현지 도착 후 약 3개월 간의 수리 기간을 거친 뒤 갈라파고스 해역에 투입돼 불법 어로, 마약 운반 등 위법행위 단속과 응급 환자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 6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지역 6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충남 소재 관할 보건소로부터 충남 지역 확진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해 받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 접촉자로 분류된 B씨가 15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제주도민이다.

A씨는 지난 13일 충남 소재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14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의 확진 사실을 통보 받은 14일 오후 7시쯤부터 1차 역학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B씨와 접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15일 오전 제주시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자가격리를 진행하던 중 오후 2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방역당국은 CCTV·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와 B씨의 세부 동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스쿠버다이빙 외국인 숨져

제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 외국인이 숨졌다.

1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앞바다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캐나다 국적의 A(49)씨가 의식을 잃었다며 A씨를 태우고 출항한 배의 선장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해경은 스쿠버다이빙 강사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고립된 낚시객 3명 구조

제주에서 밀물에 고립된 갯바위 낚시객이 무사히 구조됐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제주시 연대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 A씨 등 3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이날 오전 10시17분쯤 이들 3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낚시를 즐기다 밀물에 의해 갑자기 바닷물이 불어나 오도가도 못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상민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